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이긴 자는 영의 계급도 승진된다. 고로 사탄도 악한 자도 그를 우러러본다.
2. 계속 이기는 자는 이긴 자이신 삼위와 예수님을 차지한다.
3. 전쟁터에서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이기면 생명권으로 가고, 지면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4. 지면 사탄과 마귀와 악한 자가 다스리고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통을 주며 쓴다.
5. 이기는 자와 함께하면 쉽게 이긴다.
6. 꿈에서도 사탄과 악을 이기게 기도하고 잤더니, 다음 날 새벽 꿈에 내 앞에 큰 뱀 두 마리가 큰 널판지 위에 있는데, 손에 든 시퍼런 칼로 뱀의 배를 끊고, 목도 거의 끊어 놓았다. 고통을 겪다 죽을 것이다. 뱀은 사탄과 악을 비유해서 말한다. 꿈에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칼이 너무 예리하다고 했다. 칼은 말씀이다.
7. 꿈에도 자기 영이나 혼이 사탄과 싸운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능력과 검으로 이기는 꿈을 꾸게 된다.
8.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하셨다. 이긴 자와 일체 되어야 이긴 대우를 받게 된다.

9. 선생이 20대 때도 꿈을 꾸면 꿈에 사탄과 옛날 사람들이 선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 그들과 말쑼으로 싸웠다. 옛날 사람은 구시대에 사는 자들이라 모른다. 무지한 자와 싸우면 애간장만 타니, 먼지를 털듯 해야 된다. 지혜자는 빨리 깨닫고,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즉시 깨닫고 따른다.

10. 이길 것도 태만하게 하면 지게 된다. 끝까지 정신 차리고 마음 줄을 놓지 말고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